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설)
제28권 10호 (가해) 2008.2.3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빠알간 사과, 참 곱다.
노오란 연필, 참 곱다.
파아란 하늘, 참 곱다.
고운 것 더 고우라고 섞었습니다.
검정 사과, 검정 연필, 검정 하늘



나는 무슨 색깔까?

구상렬 · 하상바로 · 만화가

색깔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습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을 통해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그 감정을 표현합니까?

대부분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요.

다음은 아름다운 날들을 만드는 말들입니다.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 《고마워》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 주는 말 - 《잘 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 《내가 잘 못했어》

모든 걸 덮어 하나 되게 하는 말 -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말 - 《친구야》

봄비처럼 사람을 쭉쭉 키우는 말 - 《네 생각은 어때?》

언제든지 모든 날들을 새로워지게 하는 말 - 《첫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 《사랑해》

이 외에도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은 많습니다.(大)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1단계 종강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성 시간(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1단계 종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생)문재원 클로틸다, 김재연 다두와 희복 아네스 가정 김형순 다니엘, 조지 가보라,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성낙호 요셉과 은혜 실비아 가정, 박상대 신부님
주 일 낮 미사	(연)앞서 가신 조상들과 부모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무자녀 설 합동 위령 미사
	(생)박재훈 제임스와 박토니 가정, 이종민 요셉 임종택 베르나르도, 이윤조 클라라, 김형순 다니엘 이종완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서성용 베드로 가정 남가주 제60차 ME 봉사자와 수강부부들, 송기분 수산나 차민경 루시아, 차원일 요한, 박진숙 엘리사벳 푸타발리 요셉, 박상대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민수기(Numbers)	6,22-27
화답송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이 저희 위에 내리옵소서.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우리가 나기도 훨씬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느님께서 계시나이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당신께서 아가 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 돌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날 수 셀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저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뵈 여기소서.◎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보이소서.◎	
제 2독서	야고보서(St. James)	4,13-1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복 음	루카(St. Luke)	12,35-40 〈18,9-27 또는 마르코 4,1-9〉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83	188
봉헌	400	256,257
성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306,300
파견	설날	238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셨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마태 1,20; 루카 1,35),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셨으며(마태 3,17; 마르 1,10),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셨다.(마태 4,1; 마르 1,12; 루카 4,1) 또 광야에서 40일간의 광야생활 끝에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힘을 지니고’(루카 4,14) 갈릴래아로 돌아가 때를 기다리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이사 61,1-2)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과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하셨다.(루카 4,16-21 참조)

마르코와 루카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악령에 묶인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더러운 악령을 쫓아내시고 거룩한 하느님의 영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마르 1,21-28; 루카 4,31-37 참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마태 12,28)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바로 하느님의 영, 곧 성령과 함께하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의 권능을 당신께서 행사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다.

▶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과 부활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루카 24,49; 요한 14,15-31)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다.(사도 2,1-13) 성령께서 기도하던 제자들 위에 내려오신 것이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기 시작하였다. 우리도 예수님께서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참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 모시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던 것이다.(1코린 12,3)

◆(계속-CBCK제공)

행복의 사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행복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결 같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행복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간의 행복에로의 욕망을 채워 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 물질적 재산 혹은 육체적 쾌락, 또는 권력, 명예, 화려한 직업 등... 우리 각자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들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고 내 집을 장만하고 거기에 째깍한 수입으로 화려한 가구와 골동품도 골고루 들여놓으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편안하게 사는 꿈을 꾸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존경받고 어깨를 펴며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라는 것은 의문이다.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또한 행복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일까? 과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난함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제1독서에서 스바니아 예언자는 행복의 조건을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을 찾아라”(스바 2,3). 세상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가난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활자세가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말한다.

제2독서(1코린 1,26-31)는 하나님의 부르심, 성소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세속적인 기준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에 이르는 또다른 조건임을 말한다.

오늘 복음(마태 5,1-12)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하신다. 복음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함으로써 영적인 가난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정신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사고, 계획, 우리의 성성(聖性)까지도 포함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사람이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 모두는 진정한 행복이란 철저히 하나님께 기초한 겸손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며 자신의 능력,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듯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바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항상 감사하는 겸손한 믿음을 지닌 사람일 것이다.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명동성당 부주임

이번주 전체 봉사자

다음주 전체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데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4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주일)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2,819단 ☞ 총 합계: 248,086단

2월

- ◆ 성시 간 :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토런스 북구역
- ◆ 병자 영성체: 14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2월 6일(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시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오전 8시 30분, 오후 7시 30분

◆ 사순절 전 신자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통의 길에 함께 해 보십시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재의 수요일 후 금요일(2월 8일): 토런스 동구역
- 사순 제1주일 금요일(2월 15일):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2월 22일):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2월 29일):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 7일):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 14일): P.V. 구역

◆ 박상대 파르코 본당 신부님 사제서품 20주년

- 오는 2월6일(수)은 박상대 본당신부님께서 신품성사를 받으신 지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신자들과 함께 이 날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 목요 교리반 개강 및 예비자 모집

- 새 교리반 강의: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층 교리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주일학교 은총시장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 은총시장: 3월23일(부활대축일) 오전 9시30분 미사 후
- 은총시장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 San Diego)

- 주제: "Witness"
- 날짜: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170
- 신청마감: 2월24일(주일)까지
- 신청: 주일학교 교장 김베드로 ☎ 310-702-4273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

- 첫째 자녀 \$150, 둘째 자녀 \$140, 셋째 자녀 \$130
- 등록 장소: 2층 한국학교 교사실 ☎ 347-8765 이헬레나
- 2008년 SAT II 준비반 수시 모집

◆ 제 60차 M.E. 첫주말 참가자 환영식

- 오늘 주일(3일) 오후 6시, 강당
- ME가족들은 오후 4시30분까지 첫주말 참가자들을 맞으려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소재)로 가시기 바랍니다.
- 본당 참가 커플: 김광일 스테파노 ♡ 인자 요세피나 부부, 김정곤 알로이시오 ♡ 영선 마리아 부부(시카고)

◆ 성서모임 개강: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기초반: 2월 13일(수) 개강, 오전 10시 30분, 강당
- 2단계: 2월 15일(금) 개강, 오전 9시 30분, 강당
-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있는 '거룩한독서' 신청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영화 '하늘에 이르는 계단' 상영

- 2월 17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 소장)의 사순 피정

- 2월25일(월)성전- 찬미:오후 6시30분, 강론:오후 7시
- 주제: '무지개 원리', 영적 저서도 함께 소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인모	김교복	김대우	김우용	김윤진
	김준호	김태호	김현숙	김형순	박종열	박동수
	박동화	박수익	박재철	박정순	박희자	배태임
	서희준	안동훈	엄지선	오명섭	우영희	유영균
	윤선희	이경태	이광우	이병우	이병찬	이석제
	이현주	이호미	임연조	장정진	정기은	정상봉
	주재욱	차인수	최상만	최재은	홍숙자	황인중
	황지영					
합계: \$5,560						

미사헌금: \$2,807.35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김교복	김대우	김우용	김윤진
	김준호	김태호	김현숙	김형순	박종열	박동수
	박수익	박재철	박희자	서희준	안동훈	우영희
	유영균	이경태	이광우	이병우	이병찬	이석제
	이현주	이호미	장정진	정기은	정상봉	차인수
	최상만	최재은	홍숙자	황인중	황지영	
합계: \$2,575						

❉ 축하합니다. ❉

이강우 요셉과 김수진 마리아 부부가 2월2일 토요일 특전 미사 중에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 글로리아 성가대원 모집

- 대상 : 소프라노 파트
목소리 맑고 성량 풍부한 소프라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지휘자 배기엽 클레멘스 ☎ 310-325-7733

❖ 기도의 언덕 함 많이 이용해주세요.

- 기도가 필요한 분은 성체 조배실의 감실 아래있는 기도의 언덕 함에 기도내용을 적어 내시면 매주 목요일 성령기도 회 시간에 함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 3일 : 종로떡집에서 설날 떡국을 전신자에게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 2월10일 : 토런스 남1반 (소고기국밥 \$3)

남가주 소식

❖ 청장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은사 세미나

- 2월 8일(금) 오후 6시~10일(주일) 오후 3시30분
- 지도신부 : 최석현 마르코(성령체신청년봉사회지도신부)
- 대상 : 20대 후반~40대까지. 참가비 \$120
- 장소 : 테메칼라 꽃동네 ☎ 213-675-6562 신윤경 베로니카

❖ 베네딕도 16세 교황 집전 미사참례

- 교황 베네딕도 16세께서 올 봄에 미국을 방문,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미사참례(뉴욕만 가능)를 원하는 신자는 LA대교구 웹사이트(www.la-archdiocese.org)에서 2월11일까지 티켓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때·곳 : 4월20일(주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

❖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특강

- 2월14일(목), 15일(금), 16일(토) 오후 7시
- 장소 : 성 바실 지하성당(637 S. Kingsley Dr. LA)
- 강사 : 박형애 요세피나 수녀(티엠티신 마리아 성심 수녀원)

❖ 가톨릭 신문사 주최 스페인-포르투갈 성지순례

- 일시 : 3월31일(월)~4월11일(금), 11박 12일
- 회비 : \$3,100, 신청마감 : 2월15일 ☎ 323-735-0505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2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전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홍안나 213-385-0809 2/8(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6(토) 오후 7시
	3	한길선례 스텔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례 스텔라스타카 782-1025 2/15(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박인식 토마스 953-9597 2/10(일) 오후 5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윤선희 로사 371-9697 2/11(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2/8(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신경숙 에스텔 613-0789 2/12(화)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상철 213-258-7797 2/15(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오세원 아타나시오 327-8035 2/8(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박종열 토마스 아퀴나스 784-0460 2/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유미 크레센시아 541-4760 2/8(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2/22(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연중 제 4주일에 흐르는 짧은 생각들

1. 진복 팔단(眞福八端)

바람이 드나드는가
 두팔 벌리고 막아서는 것이 없어
 마음속에 쥐고 있는 것, 가슴속에 찢리 틀고
 누워있는 것 없어 바람이 드나드는가
 작고 적은 가난한 마음에
 그렇게 바람이 드나드는가
 하늘나라가 바로 거기 있다
 부드러운 미소 있는가
 양미간에 힘주고 돌아설 일 없어
 마음속에 파스한 눈길
 가슴속에 등보이고 멀리 던질 일 없어
 부드러운 미소 있는가
 온유한 미소있는 곳 축복의 부드러운 미소가 있는가
 땅과 곡식이 바로 거기 있다
 깨끗한 양심 거기 하는가
 남이 안 보는 곳 어두움 없어 마음속에 청명한 빛
 하늘 눈 들어 눈빛 흔들일 일 없어
 깨끗한 양심 거기 하는가
 맑은 마음이 거울같이 안과 밖 모든 것을
 비추어 주는 가
 하느님 모습 바로 거기한다
 여덟 가지가 버겁다면
 세 가지면 어떻고 또 한 가지면 어떻게
 깊은 초자아 가난함의 기쁨 모르고
 하느님 나라가 있는지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자
 자기 인격을 온유하게 할 노력 없고
 왜 나에게서는 땅이 없는가 하늘 들어 억울해 하는 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할 생각은 없고
 두 손 모아 힘주고 왜 하느님이 안 보이냐고 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얼마나 행복한가

2. 한 번 더 새해가 오나, 구정이라서

침침한 눈길을 저만치 던져보면
 망막에 하얀 기쁨으로 다가오는 산정(山頂)
 눈감은 눈길을 창문으로 열어보면
 눈길에 늦게 떨어져 달려오는 낙엽

손을 깊이 넣을수록 따뜻하여지는
 설악의 눈 보단 못하지만
 이마 서늘하게 하고 가슴 데워주는
 하얀 눈길에 눈동자가 하얗다
 그 눈길이 구정에는 맑혀졌으면 좋겠다
 지나간 신정보다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채각거리는 크로노스(chronos)가 진정 시간인가
 긴 호흡속에 영혼 번득여 주는
 카이로스(kairos)가 맥박위에 얼마나 같이 하는가
 그 많은 8760 시간 중에
 지금 이 곳에 머무른 시간만이
 진정한 삶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닌가
 365일 중 사랑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긴
 시간만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시간 아닌가
 눈길에 길게 누워 따라오는 마음 영혼이
 저물어 진 시간보단 밝아 졌으면 좋겠다
 늙음이 쏘고 간 손 바닥 한번 뒤집어 본다.
 마음은 그렇게 뒤집혀 준다.
 험한 세월 버텨준 두 손을 진심으로 모아본다
 영혼도 그렇게 머물러 준다
 그렇게 손쉽게
 이렇게 간단히
 불쑥 까칠하게 다가오는 삼적(三賊)의 기습도
 하얀 눈처럼 따뜻하게
 성큼 현기증 일으키는 통제 불능의 세상일도
 첫눈처럼 포근하게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간절히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면
 진정 살아 있기를
 참으로 인간이기를 바란다면
 오른뺨 맞기 전에 왼뺨을 슬며시 준비하자
 겉옷 벗기려는 자에게 속옷을 열른 내어주자
 그리고 신명나게 살아보자
 가슴 뛰게 살아보자
 그래 그렇게 살아 보자

◆최진수 에우세비오<P.V. 1반>